

‘2002년 월드컵대비 에이즈홍보전략 수립 및 HIV/STI감시체계운영 평가회’

2001년 2월 9일-10일 2일간에 걸쳐 대전 유성 엑스포 호텔에서 2002년 월드컵대비 에이즈홍보전략 수립 및 HIV/STI 감시체계운영 평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워샵은 보건복지부와 국립보건원의 후원으로 한국에이즈퇴치연맹과 대한에이즈예방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였으며 전국의 보건소 에이즈담당 공무원과 국립보건원, 구세군 한국 HIV/AIDS예방사업단 등으로부터 약 134명의 관계자들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주제발표로 2002년 월드컵대비 에이즈홍보전략(한국에이즈퇴치연맹사무총장 권관우), HIV/STI감시체계 운영실태평가 및 발전방안(국립보건원 방역계장 유병희, 역학조사과장 양병국), 남성동성애자와 에이즈(월간버디 편집장 한채윤), 서울시의 외국인근로자(불법체류자)검진실태와 개선방안(서울시 의약과장 조성역)이 있었고 ‘홍삼의 에이즈치료효과분석 및 최근의 치료약제 사용경향’ (울산의대 교수 조영걸)에 관한 초청강연에 이어 2002년 월드컵대비 에이즈예방홍보전략에 관한 분임토의가 있었다.

구세군 한국 HIV/AIDS 예방사업단 ‘예방사업자 및 자원봉사자 교육’ 실시

구세군 한국 HIV/AIDS 예방사업단은 2001년 2월 15일-16일 2일간에 걸쳐 대전 유성 엑스포호텔에서 HIV/AIDS 예방과 감염인 보호를 위한 제2기 1차 예방사

역자 및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주요 교육내용은 에이즈란 무엇인가(정위 유미혜), 구세군의 HIV/AIDS 대책활동에 관한 소개(정위 김남선), 에이즈상담사례(대한에이즈예방협회 사무국장 이창우), 에이즈관련 대책의 문제점 및 개선점(K-plus), 예방사업자 활동 안내(정위 이만희), HIV/AIDS 예방활동의 실천 탐색(참령 홍성효)이었으며 총 31명의 예방사업자가 참석하였다.

외국인 에이즈 감염인 85년 이후 140명 확인

국립보건원은 85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국내에 머물다 에이즈 감염사실이 확인된 외국인은 140명으로 이중 130명은 출국했지만 나머지 10명은 종교 및 사회단체의 도움을 받아 체류중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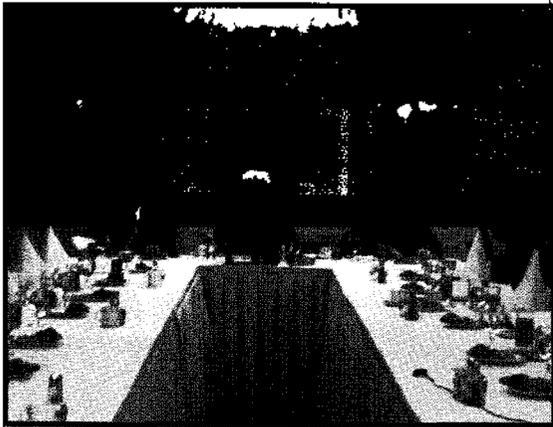
보건원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에이즈 감염인 10명에게 자진출국을 유도하고 있으며 전례에 비춰 머지않아 모두 출국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아일보, 1/4)

본회 제 7차 정기총회 개최

본회는 지난 2월 23일 호텔롯데 사뭇테 룸에서 제 7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2000년도 사업실적 및 시도지부설치, 회계감사 보고를 시작으로 2000년 세입세출 결산승인(총 세출액: ₩674,760,854)과 2001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총 예산액 ₩774,156,000)에 대한 승인이 있었다. 이어 2001년 중점사업으로 감염인의 복지증진과 인권보호에 역점

68



을 두고 기존의 서울, 부산 요양센터 외에 서울에 여성 전용 요양센터를 추가로 운영키로 하였으며 초치료비가 없어서 치료를 시작하지 못하는 감염인의 초치료비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또한 새로운 교육자료개발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중간교육자 이수자들을 통한 확산교육실적을 취합·평가해야할 필요성에 대해 토의가 있었다.

한국학자 획기적 에이즈 치료법 개발

에이즈 바이러스(HIV)가 정상세포에 침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단백질이 한국 과학자에 의해 합성되었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화이트헤드 생의학연구소의 피터 김 박사는 미 국립과학원에서 발행하는 과학전문지 사이언스 최신호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HIV가 정상세포를 감염시키기 위해 정상세포 안으로 침투하는 과정을 차단함으로써 HIV의 증식을 막을 수 있는 단백질 5-헥릭스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5-헥릭스의 이 같은 기능은 시험관 실험을 통해 확인되었으며 HIV의 일반적인 변종 모두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히고 앞으로 원숭이를 대상으로 동물실험이 실시될 것이라고 김 박사는 밝혔다. (연합뉴스, 1/12)

국내 에이즈 감염자 1,280명

국내 HIV(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 총감염인 수가 지난해 말 기준 1,280명으로 늘었다. 국립보건원은 지난해 동안 219명의 감염자가 추가로 확인돼 지금까지 확인된

HIV총감염인수는 전년보다 17.7% 증가한 1,28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환자로 전환된 감염인은 32명, 사망자는 52명이었으며 85년 이후 현재까지 총 사망자는 286명, 환자는 195명이다. 역학조사결과 감염경로가 확인된 1,092명 중 96%인 1,052명이 이성 및 동성간의 성 접촉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수혈 또는 혈액제제에 의한 감염인은 총 38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94~98년까지 연평균 12.8%였던 감염인 증가율이 99년 41.2%, 2000년 17.7%로 급격히 높아진 데 대해 국립보건원은 위험노출자들의 자진검진 사례가 늘면서 HIV감염인 발견이 증가한 때문으로 분석했다. 한편 국립보건원은 수도권(서울·경기) 지역 보건소와 외국인근로자 인권단체, 종교단체 등과 협력해 지난해 10월부터 12월말까지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 4,478명에게 무료건강검진사업을 실시한 결과 결핵유소견자 88명, HIV감염자 10명, 성병감염자 15명, 기타 질환자 1031명을 발견, 무료진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매일경제, 1/4)

여러분의 후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2001년 1~2월)

| | | |
|-------------|---------------|---------------------|
| 김경희 10,000 | 박인달 10,000 | 정순경 10,000 |
| 김남중 50,000 | 박훈영 10,000 | 조인용 10,000 |
| 김동현 10,000 | 송문용 10,000 | 최덕환 10,000 |
| 김미현 10,000 | 심치선 100,000 | 최정인 100,000 |
| 김백남 100,000 | 윤성현 10,000 | |
| 김호균 10,000 | 이성연 10,000 | 합계 2,540,000 |
| 박명희 10,000 | 이영 50,000 | |
| 박승욱 10,000 | 이행자 2,000,000 | |